

수용자가 본 언론상

오경자

한국공익문제 연구원 부원판

### 언론은 공정성과 계도성을 지녀야

현대를 정보화 사회라고들 말한다. 기술의 발달로 첨단 과학시대에 산다고도 한다. 눈깜짝할 사이에 신통하게만 보이던 신지식은 헌책방에도 낄 들이 없을 정도로 묵은 얘기 거리로 전락하고 마는 게 요즘의 실상이다. 사람들은 정보의 수명이 짧아졌다고도 하고 지식의 수명이 짧아졌다고도 한다.

정신없이 쏟아지는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정보의 수용 없이는 숨도 제대로 쉬기 힘들 만큼 각박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다. 더구나 교통·통신의 발달은 세계를 손바닥보다 좁게 만들었고 오늘도 그 정도의 심화를 향해 열심히 부채질하고 있지 않은가? 지구촌이라는 말이 무색하고 어울리지 않을 만큼 지구는 한마당이 되고 말았고 손금 들여다보듯이 세계 구석구석의 일들을 안방에서 볼 수 있음이 하나도 신기할 게 없는 형편이다. 날씨가 춥고 더운 것도 TV로 느끼지 내 체온으로 느끼지 않게 된 것도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다. 기상뉴스가 ○○년만의 더위, ○○년만의 추위 등을 되 뇌일 때마다 한층 몸이 저려 오도록 춥고 한결 숨막힐 듯이 더운 게 요즘 상식인들의 체감온도가 아닌가 한다.

고기가 해롭고 채소가 좋다는 어느 의사의 건강론이 TV 전파를 타고 안방을 스쳐 지나간 후 정육점이 파리를 날린다는 세평이 나올 정도로 우리는 매스 미디어의 대단한 위력(?) 앞에 한낱 갈대인 듯 생각되기도 한다. TV의 요리강습 프로그램이 처음 시작됐을 당시에는 그날 방송된 요리재료가 동이 나는 세태였었다. 물론 지금은 좀 시들하지만……기사나 정규 프로그램이 아닌 광고의 경우에도 우리는 그 언론사가 지니고 있는 신뢰도에 궤를 같이 하는 어리석음을 곧잘 범하며 산다.

단 한두 시간만 TV를 대하고 있어도 거기서 먹으라는 대로 먹고, 입으라는 대로 입고, 바르라는 대로 바르다가는 몸이 무쇠라도 못 당하고, 수입이 어지간해 갖고는 패가망신하기

딱 알맞다. 볼 때는 짜증스럽건만 후일 자신도 모르게 그 물건들을 쉽게 지칭하며 사고 있는 자기 모습에 별로 회의 같은 것을 느끼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생소한 이름은 곧 낮은 신뢰도와 일치하거나 정비례한다고 생각되는 잠재 의식 속에 우리는 너무 깊이 빠져 있다. 신문의 전이면 부고는 그림이 아니고 기사처럼 문장들로 짜여 있을 때 곧잘 오인되고 바로 그 점 때문에 실려지는 것 아닌가?

독자의 궁금증을 풀어 주는 것은 좋지만 사건기사의 경우 미확인 내지는 미 확정 단계에서 특정인의 사진, 인적 사항 등이 대서특필되면 아무리 조사 중, 용의자라는 설명이 붙어봐야 우리의 뇌리에는 그 사람의 일그러진 이미지가 이미 깊이 영상화되는 것을 막아주지 못한다. 더욱이 결정적인 언론사의 실수로 사과 해명기사가 나가도 실제로 입어버린 인격의 손상은 회복될 방법이 없다.

사과 해명의 기사가 원래 잘못된 기사보다 왜 작아야 되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음도 첨언해 둔다. 더욱이 여성이 관련된 기사는 곧잘 드라마틱하게 각색되거나 폭풍 같은 질타를 동반한다. 읽는 독자들도 당연하다고 맞장구 치며 재미있어하거나 준엄한 심판을 내린다. 물론 여성에게 거는 더욱 선량할 거라는 기대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변명하겠지만 「하나」이면 똑같이 「하나」 이지 왜 여성의 「하나」는 남성의 「하나」 보다 더 곱거나 더 신기하고 흥미거리여야 하느냐 말이다. 언론이 지녀야 할 공정성에도 계도성에도 정면으로 배치될 뿐이다.

「펜은 칼보다 무섭다」

「무관의 제왕이다」

이 말들의 의미는 지금도 살아 있는가? 이 대답을 누구에게 구해야 하는가? 그에 대한 가치 있는 대답을 기대할 수 있는가? 노탕처럼 몰려 왔던 시청료거부운동을 우리 언론사는 과연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나는 지금 이 글에서 그 당위성이나 옳고 그름의 시비를 가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그런 일에 대해 과연 언론은 억울하다고 항변할 수 있었는가? 얼마나 정확한 명분과 정연한 논리로 자신들의 옳음을 천명할 수 있었는가 묻고 싶다. 왜 그랬는지 명쾌하게 대처했다고 기억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가슴을 답답하게 한다.

**언론은 언론자유수호의 마지막 보루**

국민의 알 권리를 대신 찾아 주는 역할을 하여 제왕일 수 있고 종이 위에 칼날을 세울 수 있는 언론이 과연 직분을 충실히 했다고 자신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만에 하나 대답할 수 없다면 그것은 명백한 타락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저간의 사정이 여차여차 하다는 설명이 붙을 수 없겠으며 그것은 구차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칼보다 무서운 펜이 강한 자에게는 강하지 못하고 약한 자에게 강하다는 편견을 듣는다면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일로서 언론은 겸허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문제의 근원을 찾아 해결하지 않으면 수용자로부터 계속 외면당하는 비운을 맞게 된다.

현대는 분업의 사회이고 전문화 사회인데 우리의 언론은 천편일률적이었다고 한다면 너무 지나친 표현이 될지 모르겠으나 활자의 다름, 다이얼이나 채널의 숫자가 다르다는 것 외에 그 다름의 진수를 과연 수용자에게 보여 주었는지 모르겠다. 사진까지 같은 건 정말 너무하다는 볼멘소리가 구독사절로 대문간에 내붙여진 일은 없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특색 없는 신문, 같은 내용의 기사, 냄새가 확 풍기는 세련되지 못한 직설적 방법의 계몽 물들이 우리를 식상케 하고 심하면 분노를 일으키게 된다. 자기 나름의 몸짓과 색깔이 있어야 하고 강하게 인상 지어지는 뚜렷하고 독특한 목소리를 지녀야 한다. 자기의 주장이 있어야 하고 그것은 소신과 용기를 바탕으로 한 뿌리 깊은 나무여야 한다.

언론사는 어느 회사와 달리 살아남기 위해서 경영되어지기에 앞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만 그 존재의 의미가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불의를 보았을 때 사운을 걸고 정의의 편에 서야 하며 그것은 곧 언론자유 수호의 마지막 보루이기도 하다. 언론이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일수록 그 역기능은 훨씬 두드러지게 나타나 여러 가지 부작용을 빚어내는 것 같다. 흥론을 호도하거나 흥미본위의 보도태도나 중립성을 잠깐 망각한 처사나 무책임한 보도로 개인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일 등등은 모두 언론이 제자리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며 우리는 그런 모습의 언론은 결코 원치 않을 뿐더러 책임이 따르지 않는 언론자유는 아예 존재할 수 없는 망발이라고 생각한다. 객관성을 잃은 보도태도는 또 다른 화해를 낳고 만다. 자기 회사가 주최한 예술행사 등에 지나친 찬사나 권력을 동원한 보도는 자칫 객관화 되어진 사태인 양 수용자에게 전달되고 인상 지어 진다. 물론 그 보도내용이 객관적이고 공감대가 이루어 졌을 때 문제는 좀 작지만 그런 일들도 수용자 입장에서 보면 좀더 여과되어야 할 일들로 지적할 수 밖에 없다.

타사가 주최하는 예술행사는 아무리 훌륭하고 비중이 있어도 별로 취급 치 않거나 백안시하는 태도는 수용자를 무시하는 태도라고 생각된다. 그런 것을 각 사의 특징이고 색깔이라고 말하면 더 대꾸할 말은 없다. 수용자의 안목이 더욱 높아져서 자연도태의 경지에 이르기를 손꼽아 기다릴 수밖에 더 무슨 묘책이 있겠는가? 어떤 드라마 하나가 대부분의 사랑들을 TV 앞에 붙잡아 앉히고 수도 물 사용량이 다 줄어든다는 얘기도 이제는 구문이 된지 오래다. 요 얼마 전 한편의 드라마가 여러 집에 부부싸움 불씨로 등장해서 화제가 된 일이 있다. 지금 여기서 그 드라마의 옳고 그름이나 방송의 적격성 여부 등을 논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보도가 아닌 드라마들의 경우에 기존의 사회통념, 그것도 남성우위의 바탕 위에 선 통념을 근거로, 전제로 해서 윤리성 여부를 따지는 것은 좀 적절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

여성이 인간이고자 하는 몸부림이 기존 질서, 즉 미풍양속이라는 거울로 볼 때 마땅치 않다 해서 매도한다는 것은 최소한 여성수용자들에게는 납득될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문제도 언론수용의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는가와 깊은 함수관계를 갖는 일이겠지만 언론의 불편부당성이라는 입장에서 생각해 볼 일이다. 언론의 일거수일투족에 온 국민이 들끓는 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니겠지만 그것은 곧 언론에 대한 신뢰도의 척도라는 점에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 언론은 사서적 감기

우후죽순처럼 언론사가 생겨나고 사이버 기자의 불미스런 얘기들이 귓전을 때리는 요즘 착잡한 기분은 나만이 느끼는 메스꺼움은 아닐 게다.

용수철은 강하게 누를수록 그만큼 강하게 튀어 오르는 반작용이 있다고 곧잘 인용들 한다. 그 자명할 수밖에 없는 일이 왜 금과옥조처럼 인용되는 것인가? 너무도 당연한 일을 누구도 쉽게 피해 가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아이들 공부를 너무 독려해서 초등학교 때는 백점짜리 아이로 반짝이게 했는데 그 결과가 중학교·고등학교 어느 땐가 휴화산이 터지듯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욕구불만의 몸짓으로 하여 아이와 엄마가 다 함께 당황하고 후회하는 일들을 가끔 볼 수 있다. 쓸데없는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은 지금 우리의 언론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가치가 충분히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어 부언해 보았다.

왜 사이버 기자가 존재하는가? 물론 깨끗한 손들만 갖고 산다면 사이버 기사를 아무리 양산해서 배출해도 발붙일 곳이 없어 도태되고 말아 사회문제화 될 일이 없다. 문제는 구린 구석을 깔고 앉아 사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의 반증이 된다. 그러나 그것이 언론이라는 중요한 기관에서 신분을 보장하는 기자라는 데 문제의 핵심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화폐원리가 언론의 경우에 통용될 수 없음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으나 언론의 신뢰도가 엉뚱한 일로 하여 손상을 입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라 생각되어 해당 언론사의 대오각막을 기대하고 시급한 대책을 지켜보겠다. 언론은 하나의 기업이기 이전에 사회의 공기임을 잊어서는 안 되며 그것이 거추장스럽거든 다른 방법으로 부를 좇음이 훨씬 수월하고 또 사리에 맞을 것임을 충고해 둔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방죽을 휘젓는다는 속담을 인용할 필요도 없이 모처럼 찾은 언론의 새로운 도약기와 자리 찾기의 힘겨운 작업에 먹물을 끼 없는 불상사가 하루빨리 없어지기 바란다. 정정당한 방법으로 질

좋은 언론매체라는 상품으로 고객을 확보해서 깊숙이 뿌리를 내리는 언론사로 발전하기를 바란다. 질 좋은 언론의 발전만이 민주주의의 열매를 맛있게 익힐 수 있는 소양이 되기 때문이다.

## 수용자가 바라는 언론의 미업상

그러면 좀더 구체적으로 어떤 언론을 수용자는 원하고 있는가 이제까지의 문제제기에서 거론된 일들의 반복이 될 수도 있겠으나 바람직한 언론의 미래상이라는 관점에서 요약해 보고자 한다. 보도의 신속성은 생명이라 하겠으나 정확성을 결여한 신속은 무의미를 지나 신뢰의 실추라는 마이너스 점수를 가져오는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언론의 자유보다 개인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는 반박이 결코 언론자유침해가 아님을 구분해야 한다. 그것이 곧잘 국민의 알 권리를 방해하는 방패로 쓰여진 우리의 잘못된 구습으로부터도 과감하게 빠져 나와야 된다. 국민의 알 권리라는 커다란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일반사람들의 일은 흥미본위, 호기심에의 영합 등의 이유로 정확성을 결여한 채 신속성이라는 미명하에 대서특필된 후 정확성이 문제되어 사과 해명의 명령을 받으면 원래 기사보다는 분명히 작은 글씨로(깨알 같다고 하면 내가 명예훼손으로 제소될지 모르니 할 수 없이 이 정도로 표현할 수 밖에……) 찍어 주고 만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 알 권리와 분명히 관계가 있는 일의 보도가 늦어져 성화가 빗발치면 그럴 때는 개인의 인격도 보호되어야 한다. 언론자유 명분으로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수는 없다고 강하게 항변하곤 하던 일들이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언론을 흑시 시들하게 보도록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심히 염려스럽다.

불편불당하고 공정한 보도를 바란다. 급변해가는 사회 속에서 뒤지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도 우리는 신문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하다. 새로운 정보와 지식의 신선한 공급원이기를 언론에게 바라는 이유 또한 이 때문이다. 특색 있는 지면(프로그램)을 편성하고 각계각층에게 고르게 이용될 수 있도록 각 언론들이 전문화되고 자기의 색깔을 지니기 바란다. 이런 여러 욕구를 다 만족시켜 준다 해도 소신 있는 자기의 주장을 갖는 언론이 아니면 설 땅이 없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오늘의 수용자는 언론의 강제판매에 더 이상 끌려 다니지 않는다. 자기가 원하는 언론만을 구매할 권리가 있고 누구로부터도 그것을 제한 받거나 강제 받지 않을 자유가 있다. 광고도 되도록 여과해서 게재하는 단계로까지 발전해야 언론의 신뢰성이 제고됨도 기억해야 할 일 중의 하나이며 빠른 시일 안에 언론사의 신뢰성이 광고를 더욱 돋보이게 할 정도로 선택된 광고를 실을 수 있는 단계까지 발전하기 바란다. 책임 있는 보도를 생명처럼 소중히 생각하는 언론을 원한다.

앞에서 누차 얘기했듯이 언론의 영향력이 막강한 추세로 보아 객관적 전달자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제작된 언론 상품은 마약보다도 무서운 독소일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자기 주장이 희미하거나 약한 사실은 돋보이지 못하며 상품으로서의 언론의 질을 저하시킨다. 도도한 논설이 신문을 읽는 깔끔한 묘미임은 중언복언 할 필요가 없는 매력이 아닌가? 지나친 경쟁으로 똑같거나 비슷한 소재의 우려먹기 식 제작은 시청자를 식상하게 한다. 그것도 요즘의 어떤 역사물같이 시대배경과 소재가 똑같은 드라마를 방영하는 태도는 수준 이하로 평가 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한다. 어느 쪽이 사리에 어긋났는지는 시청자들 중 수준 있는 식자라면 다 아는 일일테니 더 이상 상술할 생각은 없다. 프로그램이 자기들의 것이 아니라 수용자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발상은 애초에 없었을 일이라고 본다. 교양프로그램의 정착이 무엇을 대변하는지 참고했으면 한다. 긴 안목으로 볼 때 흥미본위의 오락프로그램에만 급급하는 매체는 도태될 위험이 많다는 반증으로 보는 것은 너무 성급한 단정일까? 언론, 특히 말초적인 영향력이 더 큰 방송, 그 중에서도 TV의 교육적 기능을 꼭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는 어려운 주제로 논쟁을 벌일 지면이 아닌 줄도 알고, 간단히 답을 내릴 일도 아닌 줄은 알지만 우리의 가정형편을 한번 생각해 보고, 방송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아쉬워 질 때가 많다. 우리의 가정이 핵가족화 되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3세대 가정이 많은데 각 세대가 따로 따로 TV를 보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게다. 시아버지, 며느리, 아들, 손자가 꼭 그토록 민망한 장면을 함께 볼 수도 있는 위험부담을 안으면서까지 예술성(?) 있는 작품을 보여 주어야만 방송의 책무를 다 하는 것인가? 글썄 내가 너무 진부한 생각이려면 새 시대 감각을 지닌 수용자들에게 오히려 미안한 일일 것이나 어쩐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백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단 1명의 억울한 죄인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법의 입장을 정확한 보도라는 문제에 대입시켜 보면서 그것이 바로 수용자가 바라는 언론의 모습임을 강조해 둔다.

고려대 법학과, 이화여대교육대학원

경제통신사 기자,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사무처장

현재 한국사회교육연구원원장. 한국공익문제 연구원 부원장